



기독교사회복지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EXPO 2010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섬김과 나눔의 행복축제

www.c-expo.org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사회복지인대회

기독교 사회복지인들의 소명

| 일시 | 2010년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2:00 ~ 오후 5:00

| 장소 | 여의도순복음교회 바울성전

|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10 조직위원회 |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섬김과 나눔의 행복축제

www.c-expo.org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0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기독교 사회복지인들의 소명

사회복지인대회

인/사/말



김 삼 환 목사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대회장, 명성교회 당회장)

한국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았는지, 마치 한국 교회의 성취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 낸 성과인양 자만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풍성하게 받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 자신을 위한 소비는 줄이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나눔은 더 크게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진정한 희망이 되기 위하여 교회는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며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부흥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민족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아픔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참된 생명이 있고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과 구원의 방주임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은 한국교회가 주님의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다양한 행사와 자료를 제공하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사랑과 수고와 눈물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바라오며, 모든 과정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환/영/사



이 영 훈 목사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조직위원장,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의 역사속에서 지난 125여년 한국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일에 앞장 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 한국교회가 실천해 온 다양한 섬김의 모습은 한국사회발전 에 크게 기여하였고, 많은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은 현재 한국 사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교회와 기독교 사회복지단체가 한 곳에 모여 지금까지 실천해 온 그 귀한 사역을 한국교회가 사회 앞에 알리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엑스포가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섬김의 사역을 다하고 있는 교회와 단체에는 따뜻한 격려를, 새로운 복지사역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와 단체에는 힘찬 용기를,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알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엑스포를 통해 한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복지사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됨으로 기도와 참여, 후원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 차

주제발표 1 	9
“한국에 뿌리내린 기독교 사회복지”	
_ 인세반 대표(유진벨재단)	
주제발표 2 	10
“기독교 사회복지의 역사적 소명”	
_ 민경배 석좌교수(백석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0

사회복지인 대회

“기독교인으로 사회복지에 종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기독교사회복지는 이웃사랑의 통로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에서는 사회복지 각 영역에서 종사하는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정신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펼치고 있는 교회사회복지, 사회복지재단 등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섬김의 정신에
대한 축하와 격려를 하고, 이 땅에 기독교사회복지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1. 주 제 : “기독교 사회복지인들의 소명”
2. 일 시 : 2010년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3. 장 소 : 여의도순복음교회 바울성전
4. 대 상 : 기독교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목회자, 사회복지사, 종사자, 봉사자,
평신도 등 기독교 사회복지에 관심 있으신 분
5. 사회복지인대회 프로그램일정

구 분	발 표 내 용	비 고
경배와 찬양 (13:45~14:00)	여의도순복음교회 영어예배팀	
Intro (14:00~14:05)	“기독교 사회복지 역사 영상”	
예배 (14:05~14:35)	인도_ 박천일 목사(CTS 사목) 기도_ 조성철 장로(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설교_ 강홍복 감독회장(감리교) 축도_ 전광표 사령관(구세군 대한본영)	
1부_ 섬김의 씨앗 사회 : 김종생 목사(한국교회희망봉사단 사무총장)		
공연 (14:35~15:00)	온누리 사랑챔버 오케스트라(발달장애인) 지휘자 : 손인경(소마트리오)	
주제발표 I (15:00~15:30)	“한국에 뿌리내린 기독교 사회복지” _ 인세반 대표(유진벌재단)	
주제발표 II (15:30~16:00)	“기독교 사회복지의 역사적 소명” _ 민경배 석좌교수(백석대학교)	
2부_ 섬김의 열매 사회 : 김상호(MBC 아나운서, 굿피플 홍보대사), 황현주(SBS CMBC 아나운서, 굿피플 홍보대사)		
공연 (16:00~16:30)	CCM공연_ 천관웅 목사 헤리티지	
인사말 (16:30~16:35)	사회복지인대회 공동대회장 _ 김성이 교수(이화여대, 前보건복지부장관) _ 조규환 회장(사회복지법인 은평천사원, 前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시상식 (16:35~16:40)	행복나눔 生生 아이디어 시민공모전	
영상상영 (16:40~16:50)	「행/복/한 섬김이 UCC 공모전 우수영상 모음」	
시상식 (16:50~16:55)	행/복/한 섬김이 UCC 공모전	
선언문 낭독 (16:55~17:00)	“행/복/한 섬김이” 선언문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섬김과 나눔의 행복축제

www.c-expo.org

“한국에 뿌리내린 기독교 사회복지”

유진벨재단 대표 인 세 반

한국교회 사회복지의 역사적 소명

- 1885-1945 -

백석대학교 석좌교수 민경배

1. 한국교회의 사회사적 구도

사회복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에서 여러 형태의 장애(障戔)로 소외되거나 격리되고 경멸되거나 낙후되어 제외되는 이들에 대한 관여와 봉사 그리고 사랑으로 그 원상을 회복시켜 주어 정상적인 생활에 되돌아가게 하여주는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의 사회적인 문제에 국한한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종교적 도덕적 문화적 문제는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여야할 문제일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그 선교 첫날부터 우선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접근하기 쉽고, 또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긴급한 문제들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환영받을 수 있는 사건과 그 문제해결의 길을 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병원이나 학교와 같은 통로를 개척하고, 거기 따라 사랑과 위로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과 만나 소통의 길을 열고, 그리고나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교회사보다 사회사(社會史)가 앞섭니다.

선교초기의 신앙유형이나 신학은 그런 의미에서 사회를 구원하는 동력, 사회복지적 역할의 표현으로서 형질화하여 갔고, 당연히 한국사회의 반응은 그런 기독교의 역할에 흡수되는 경로가 넓었습니다. 근대화의 현실적 통로가 그 때만 하여도 기독교밖에 없었다는 사정도 있었지만, 사회개혁과 복지의 선교 형태는 어차피 한국사회의 요청도 있고 해서 도처 수용

환영되는 속도가 상상이외의 빨랐습니다. 이것은 초기 한국교회에 개신교 선교를 시작한 미국선교사들의 정교분리 원칙이나 경건주의적 자세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상황전개였습니다.

사회 풍습의 인도적(人道的) 혁신이나 사회폐습에 대한 개혁과 도덕적 기품의 향상, 사회적으로 떠밀리던 계층에 대한 애호와 시혜(施惠) 그런 것 말고도, 건강한 생활의 창달, 가난한 농민들에 대한 농사개량 방법의 전수라든가 생산 증대, 산업 발전에 대한 합리적 사고와 조사, 이런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독교의 수용과 공헌은 한국 근대사 전역에 걸쳐 다시 한 번 숙고되어야 할 역사적 공헌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인간존엄에 대한 신념, 거기 대한 외경과 삶의 방향정립, 이런 성서적 메시지 때문에 그 접근 속도가 가속화하고 또 헌신적으로 수행되었는데, 이는 거기 신부(神賦)의 사명감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데 둘째 단계에 가서, 다시 말하면 1905-1920년대에 가서, 교회는 천황(天皇)기축의 신정정치(神政政治)와 식민통치의 압제, 그리고 포악한 군국주의 폭정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최소한도의 생명유지, 그런 것이 위협받는 정황이 되었는데, 그때 교회는 우리 사회구원의 정신과 메커니즘으로, 인간존엄의 마지막 보루로 현존하고 기능해가는, 그런 용기와 사명으로 일관할 수 있었습니다.

3.1 독립운동의 경우에도 사회학적 해석이 필요한 국면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의 구호 중에 도덕적 퇴폐 곧 유곽(遊廓)이나 주초(酒草) 및 아편과 같은 사악으로 민족을 해체시키려한 총독정치의 악랄한 의도가 질타된 사실이 그것입니다.¹⁾ 이런 사회악을 통치의 한 수단으로까지 남용한 정치악을 국제사회에도 공람(供覽)시킨 것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1920-1940년대까지의 한국교회 사회구원운동은 역사의 대세를 따라, 사회교회로서 그 체질이 전환하면서 그 선교목표가 더욱 구체화하여 갔습니다. 사회 공산주의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계교회 역시 예루살렘에서 국제선교협의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문제에 교회의 메시지를 집중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 그 사회운동은 사회복지, 사회봉사, 사회사업, 사회개선, 그리고 당시 민족 사활의 문제로 등장한 농촌문제, 이런 것으로 선교형태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촌사회의 궁핍이 가속화하여, 민족 단위의 채무(債務)와 소작농의 급증, 막막한 호구지책(糊口之策), 일본 본토 중심의 미가(米價)정책과 거기 의한 쌀값의 폭락, 이렇게

1) The Mission Body on Reforms in Korea, Fed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September 20 1919, The Japan Advertiser(1919: 10 11일자).

해서 깊이 깊어진 절망과 실의가 전 사회를 뒤덮고 있을 때 그 출구전략을 백방 모색한
기독교회의 공적은 이를 어디서나 선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는 땅 잃고 절량(絶糧)의 아픔을 참다못하여 집 떠나 만주나 시베리아로 정착
없이 흘러가는 이민(移民)의 행렬로 그 문을 닫는 교회 수가 적지 아니하였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그 찬란한 자립 자급정책의 전통이 동요되고, 그 경제적 핍질이 가중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의 누출현상”이 교회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더하여 동시에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사회 공산주의가 반제(反帝) 민족해방과 무산대
중의 해방을 외치면서 청년층과 궁핍한 농민들 사이에 동시에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불가지론과 유물론 그리고 무신론으로 물든 소위 지식인들이 교회 타도를
외치면서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일제의 주구(走狗)라는 말을 서슴치 아니하였습
니다. 사회운동의 목표가 그 사회를 병들게 한 주체에 대한 도전이 아니고 그 체제가 흘려놓은
병폐와 상처만을 고치려고 한다는 사후정책적 인도주의를 반역이라고 공격하였습니다. 더구나
일제의 황실(皇室)과 조선총독부에서조차 나병원(癩病院)에 보조금을 주고 그 병원장 윌슨(R.
M. Wilson)에게 은배(銀杯)를 준 일이 있는데²⁾, 이를 친일 반민족으로 난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그런 수혜(受惠)가 반역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적십자(赤十字)는
적군 아군을 가리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국제관계의 통례입니다. 그래서 적십자선이나 적십자
수송차는 적군이라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적(利敵)이란 말을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제사업의 대상은 피아(彼我)의 경계선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
곤궁에 처한 사람은 누구든지 인류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국경이나 원은(怨讎)은
없습니다.

여기 교회가 잠잠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사회과학적인 인식을 갖추고 사회선교
구도를 설정하여 사회회원운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운동, 사회복지
운동이 자칫 총독부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섰던 것 역시사실입니다. 그 사업의 현실성
때문에 조선총독부와와의 협력 내지 용역(用役)이나 하청(下請)을 피할 수 없다는 조직상의
생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운동 자체를 전통적인 한국교회 다수가
반발하고 떠밀어내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사회복지운동군 일부의 개인적인
스캔들이 노출되면서, 커다란 시련을 겪다가 해방을 맞았던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문제를 1885년에서 1945까지로 한정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2) 조선나환자의 은인 우월순박사 구제사업, <기독신보> (1932: 7, 20일자).

2. 한국교회 사회구원 선교

2.1 선교사 입국 당시의 가난과 질병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처음부터 성서적 진리를 전파하는 일이 쉽지 아니하였습니다. 한미수호조약(1882)에 전교(傳敎)의 자유가 언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차원이 아닌 사회생활영역에서 도움을 주거나 긴급한 일을 구원하는 형태의 선교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의 역사는 사회복지적 선교로 시작하였다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선교가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기독교가 정착하게 하는 아주 단단한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선교에서 이 사회복지적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70문도를 사방에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곧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누가복음 10: 8-9)

하나님의 나라 선포이전에 병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하라는, 전후관계 과정 설정의 선교전략이었습니다.

처음 입국한 선교사는 1884년 9월에 인천에 상륙한 미국 북장로교의 알렌(H. N. Allen - 安連)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그해 12월에 일어난 갑신정변(甲申政變)에서 중상을 입고 거의 죽을 뻔한 민비의 친조카인 민영익(閔泳翊)을 서양의술로 완쾌시킨 덕에 다음 해 4월 10일에 광혜원(廣惠院)³⁾이라는 근대식 병원을 설립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봉사할 의원(醫員)들이 필요하다는 구실로 남녀 선교사들을 입국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의료봉사가 한국선교의 길을 넓게 개방할 수 있었던 첫 문호였습니다.⁴⁾

그런데 이 병원의 1885년 4월 10일부터 1년간의 의료활동은 10,460 왜래환자, 265 입원환자, 150 대수술 환자, 394 소수술 환자라는, 그런 놀랄만한 실적이었습니다.⁵⁾

처음 입국한 선교사들은 한국인의이 생활환경에 우선 눈을 돌리고 그 개선과 향상을

3) 두 주일 후에 제중원(濟衆院)으로 개칭, 이 광혜원이 연세대학교의 모체.

4) D. L. Gifford, Ever-Day life in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1898, p. 142

5) The Beginning of Medical Work in Korea, The Korean Repository (December 1892: 356)

도모하는 것이 선교의 첫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한 구원의 선교는 우선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치병(治病)은 인간의 존엄을 그 도덕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으로 우선한다는 경륜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한국인의 가난과 질병에 우선 함께 아파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광범위한 의료통계를 통하여 한국인에게는 위장병과 피부병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 다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위장병은 빨리 먹거나 아무거나 막 먹기 때문인데, 같은 상에 들러 앉아 그 얼마 안 되는 밥을 함께 식구들이 먹을 때 서둘지 않으면 차례가 안 돌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피부병은 물론 불결과 여러 식구들이 한 방에서 조밀하게 잠자는 일로 널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도 물론 거기 있었습니다.

이런 것 말고도 한국에는 도처 천연두, 발진티부스, 학질, 매독과 같은 질병들이 무섭게 다양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런 질병들의 퇴치에서 낀 선교사들의 공헌은 절대적이어서 한국근대사의 한 기념비로 세워져야 할 공로입니다.

2.2 미신과 굿의 사회적 경제적 재해(災害)

한국인들은 질병이나 역질(疫疾)이 사신(邪神)에 의한 것이라고 어리석게 믿고 있었습니다. 덴니스(J. S. Dennis)라는 사회학자는 한국이 “만신(萬神)의 옥토요 사귀들의 집단 서식처”⁶⁾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에는 도처 귀신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언제나 신경쇠약에 걸리고 공포심에 질리고 불안감에 쫓기는 가련한 모습, 그 원인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씌워진 막대한 경비(經費)입니다. 선교사들의 위대한 공헌은 이런 문제들을 종교적으로만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해결하고 납득시킨 데 있었습니다. 통계 조사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한 근대화 작업의 엄청난 공헌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교사들은 1890년초에 조정과 지방 관청을 찾아다니면서 그 통계자료들을 수집하고 작성한 것입니다.⁷⁾ 거기 의하면 굿에 드는 비용은 1년에 2,500만 달러였습니다. 이것은 무당에게 가는 인건비만 계산한 것입니다.⁸⁾ 차례상이나 음식들을 가산하면 액수는 2배 이상이

6) J. S. Dennis, *Christian Missions and Social Progress* (1893: 455).

7) 우리나라 사회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의 이만갑교수는 이런 사회조사를 하기 위해서 왔던 선교사와 동행하던 조교 역할을 하면서 사회학을 익혔던 것.

8) I. Bishop, *Korea and Her Neighbour* (1898: 403).

될 것입니다. 당시 조정의 1년 예산이 4,530만 달러,⁹⁾ 전국의 농토 평가액이 400만 달러였습니다. 그렇다며 곳에 드는 돈은 조정 1년 예산액의 3배, 농토평가액의 거의 10배에 이르는 돈이 매해 매해 곳으로 낭비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빈곤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것은 허비요 그러면서도 겁에 질려 가슴을 펴지 못하는 사회악의 극치였습니다.

그런 것을 기독교가 고쳤다면 그것은 단순히 미신타파 정도가 아닙니다. 한국을 살린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를 살린 것입니다. 한국인이 가슴을 펴고 다니게 한 것입니다. 기독교 아니더라면 한국은 쇠멸할 뻔하였습니다.

2.3 여성의 모습—인간화의 길로

한국에서 여자들은 여편네로 구박을 받았습니다. 1900년 한 선교사는 남편에게 사형(私刑)을 받아 코가 찢리고 발이 불에 타고, 순검(巡檢) 면전인데도 빈사상태로 구타를 당하는 여인의 모습을 기록에 남긴 일이 있습니다.¹⁰⁾ 당시 기독교인이 주관하던 <독립신문>은 한국의 남편들을 “야만”이라고 부르기를 서슴치 아니하였습니다.¹¹⁾ 이런 여인의 사회적 처지를 바꾼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여인들도 그 이름이 따로 교회교적부에 실리고, 전도사(Bible Woman)라고 하여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실로 천지개벽이라고 할 만한 대단한 변혁이었습니다. 조혼(早婚)을 금지하고 개가(改嫁)를 자유롭게 해줌으로써도 그들을 한 인간으로 신분을 격상시켜 준 것입니다. 결혼도 부모의 간섭 없이 서로 배우자를 선택하도록 한 것인 교회입니다. 1899년의 일입니다.¹²⁾ 겸상(兼床)도 교회가 먼저 하였습니다.¹³⁾ 1901년의 일입니다. 황해도 평산 감바위교회에서 그랬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제 부부의 관계가 정절과 사랑 그리고 평등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뚜렷해진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 확립은 교육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배재학당과 이화학당 정신여학교는 거의 같은 시기에 세워졌습니다. 무속(巫俗)이 대개 여인들에게서 깊이 신봉되어 오던 것이어서 무당곳으로 생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이런 여성교육이 끼친 공헌은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9) 우상륜,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 1897. 4. 14일자. 논설, <독립신문> (1896: 5. 7일자).

10) J. R. Moore, Village Life in Korea, (1911: 232-234).

11) 논설, <독립신문> (1896: 4. 29일자).

12) 예수교 장로회 조선총회, 제 3회 회록 (1914).

13) 희한한 일,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899: 7. 19일자).

한국의 거대한 인적 자원인 여성의 에너지를 가동(稼動)시킨 것이 기독교입니다.

2.4 주초(酒草)의 금지-절제운동

술의 해독은 한국사회에서 심각하고도 비극적이었습니다. 일생 모은 재산을 빼앗고 죄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패가망신(敗家亡身)하게 하고 협잡과 뇌물, 투기와 노름에 빠지게 하여 사회적 폐해를 쌓아갔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음주량은 실로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가령 1923년 한국에서의 주류생산량은 외국 수입량과 까지 합쳐서 49,347,470원에 해당하였다.¹⁴⁾ 당시 한국인구 1,760만으로 볼 때 1인당 2월 98전이었습니다. 1925년에는 겨레가 노숙혈거(露宿穴居)에 초근목피(草根木皮)를 씹는 참상인데도 술에 시가 1억 3천원, 담배에 7천만 원, 합계 2억여 원을 퍼붓고 있었습니다.¹⁵⁾ 당시 교육비는 연 1천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교회는 외쳤습니다.

우리는 주초를 자녀보다 더 사랑한다. 말과 생각이 이에 미치매 소리 터놓고 곡(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¹⁶⁾

이 액수는 백평 집터의 열칸 기와집 94,448채와 519,469명의 1년 생활비, 8백의 초등학교, 6백의 중학교 교육비로 각각 환산되었습니다.¹⁷⁾ 1927년 여자기독교절제회는 선전 전단을 통해 당시 호구(糊口)찾아 해외이주민이 인구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데, 당시 술로 소비되는 돈을 가지고, 고국을 떠나는 이주민들과 자살자들을 50년간 구제할 수 있다고 피눈물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¹⁸⁾ 김교신(金敎臣)은 금주단연(禁酒斷煙)의 이론을 세우고 실천하기 전까지는 분노의 열정을 억제할 수 없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¹⁹⁾

이런 절제(節制) 반주마(反酒魔)운동은 1927년에 이르러 절정을 이룹니다. 황해도 황주와 경북의 대구에서 시가를 일주하는 대대적인 주마정벌행군(征伐行軍)이 있었습니다. 1920년도의 조선총독부 예산 편성을 보면 전 세입금액 25,185,846원 중 주초 세입이 10,068,110원으로

14) Oh Kungsun, Prohibition i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April, 1926: 70).

15) 반기독교운동을 보고, <기독신보> (1925: 11, 11일자).

16) Loc. cit.

17) J. D. Van Buskirk, Korea: Land of the Dawn (1931: 79).

18) 금주배라 선전, <기독신보> (1927: 11, 16일자).

19) 금주와 단연, <성서조선> (1933: 7월호).

전체의 세입액의 39.98%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전체의 반에 약간 못미친 금액이었습니다.²⁰⁾ 우리 거래 공핍과 탈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주법안 입법추진으로 그 사회악을 섬멸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운동이 일부 결실을 맺는 날이 온 것입니다. 1937년 한국교회가 발의한 “미성년자 금주금연법”이 조선총독부 심의를 거쳐 1938년 3월 초 일본 내각 법제국 심의회에 회부되었으며, 그것이 내각의 각의(閣議)에서 통과되어 그해 4월 1일부터 칙령(勅令)으로 공포되었던 것입니다.²¹⁾ 일제의 한국교회 핍박이 절정에 이르러 신사참배강요로 한국교회가 수난이 모질던 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사회구원적인 운동은 그 간악한 일제조차도 막을 수 없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2.5 폐창(廢娼)운동

3.1운동 때의 일입니다.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은 조선총독부에 건백서(建白書)를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 제 6항은 도덕적 개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유곽(遊廓)의 법규, 아편이나 몰핀의 총독부 전매(專賣)의 문제, 주류 판매 문제, 미성년 금연문제, 소년노동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논박되고 있습니다. 개선을 요구한 사회적 문제들입니다.

이런 요구를 하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일제는 한국 도처 도읍마다 홍등가(紅燈街)를 세웠는데, 서울에서만 50만 달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어지던 평북 선천(宣川)에도 들어섰습니다. 스코필드(F. W. Scofield)박사는 유곽이 개성에 들어설 때 한국 남자 894명, 일본 남자 60명에 공창(公娼) 1명이라는 파격적인 비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²²⁾

우리 교회는 1928년 현재의 창기나 공창, 작부들의 총수가 3,588명이요 일본 기녀(妓女)까지 합친다면 1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었습니다.²³⁾ 교회는 공창제도 폐지가 이런

20) The Annual Report on Reforms and Progress in Chosen, Government-General of Chosen (1921-1922: 49-50).

21) 미성년음주흡연금지법안 축성회, 〈毎日新聞〉(1935: 12, 18일자).
Cf. 민경배, 한국교회의 사회사 (2008: 425).

22) F. W. Scofield, What Korea Suffers from Japan, The Christian Register (1920: 9.16일자). 한 여자 선교사는 1만 명 인구에 유곽 17개소라는 파격적 실례를 확인한 바 있다. A. S. Dorris, Needs and Opportunities for Social Service in Korea, The Christian Movement in Japan, Korea and Formosa (1920: 329).

23) 창기와 인도문제, 〈기독신보〉(1928. 11, 28일자).

총독부 시책에 대한 민족양심의 저항이란 것 말고도, 거기 두 가지 뜻깊은 목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런 타락 아니면, 가정의 빈곤 때문에 불가피했던, 그런 여인들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시설의 건립이요, 다른 하나는 여성의 순결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으로 보편화시키고, 더 나아가 가정의 신성, 모성(母性)의 신성, 그런 것을 확립하는 일대 사회개혁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성의 존엄은 결국 여성을 모성으로 보는 윤리적 시각에서만 확립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창세기의 첫 여성 해와는 그 이름이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었습니다.²⁴⁾

이런 경우에 폐창운동은 반(反)총독부 운동에 해당됩니다. 한 국가가 악랄한 민족말살 정책을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밀고 나간다면, 그것은 복지사역이라든가 사회적 도덕적 개혁이라는 차원을 이미 넘어서서 민족해방의 슬로건으로 추진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운동의 거대한 물결이었습니다.

2.6 아편과 몰핀의 판매

아편의 오용(誤用)은 한국 근대사부터의 일입니다. 특히 일제의 한국 보호늑약(1905) 체결이후에는 일본에서 여러 아편상인들이 몰려들어와 그 매매가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었습니다.²⁵⁾ 당시 평양의 기독교병원에서는 한 달에 아편중독자 평균 35명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평양 인구는 7만 명 정도였습니다.

합병이후는 조선총독부가 나서서 아편을 전매(專賣)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제가 한 국가로서는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기에 넉넉하였습니다. 1917년 한 선교사는 그의 선교지역에서만 총독부의 관영 양귀비 재배가 1천 에이커(1,224,000평)에 달하고 있었다고 보고합니다.²⁶⁾ 1918년 조선총독부의 아편생산량은 2,022관(貫)이었습니다. 행상인들이 아편과 몰핀 주사기를 팔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3.1운동의 여파로 1920년에는 41관으로 줄고 있었습니다.²⁷⁾

한국교회는 단호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곧 그런 악행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사악한

24) 창세기 3: 20.

25) H. B. Hulbert, Opium in Korea, The Korea Review (July 1906: 248).

26) E. W. Twings, The Morphine Evil in Korea, The Peking Gazette (1917, 10, 3일자).

27) The Annual Report on the Reforms 문 Progress in Chosen, Government-General of Chosen (1922-1923: 114).

범죄(monstrous outrage)라고 성토했던 것입니다.²⁸⁾ 이런 추악한 모습은 일제가 세입증대라는 차원은 고사하고라도 우리 민족의 정신과 육체를 해체시키고자 한 전대미문의 도덕적 대량학살 이외 어떤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한국교회의 반(反)아편초운동은 이처럼 민족구원 운동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사회운동 곧 복지운동은 민족구원의 거대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3. 선교사들의 사회구원 사역들

3.1 초기 선교사들의 사회구원 사역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본 것은 가난과 불결과 의기상실이었습니다. 한국을 우선 살리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우물은 시궁창 옆에 있어서 온갖 시궁물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온갖 전염병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선 뚝섬에 땀을 세웁니다. 서울 인구 14만 장도였는데 4백만 명이 마실 음료를 위한 땀이었습니다.

의료선교는 기독교의 실상을 그 깊이에서 보여주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의사 알렌은 고종의 시의(侍醫)였는데 그렇게 옥체를 만지던 손으로 천민이나 백정(白丁)의 몸을 만지고 치료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존엄의 사랑을 앞에서 보여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사건이었습니다. 다들 눈물을 흘렸습니다.

1895년 8월 청일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이름 모를 유행성 역질(疫疾)이 무서운 속도로 전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사흘정도 지나 대개 다 죽어갔을 정도의 가공할 만한 병이었습니다. 후에 이것이 호열자로 알려졌지만 조정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²⁹⁾ 제중원의 에비슨(O. R. Avison)은 고종(高宗)에게서 방역책임자로 임명받아 경찰권까지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³⁰⁾ 서울 4대문 안에는 대개 조정 고위직 관리들과 사대부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역시 병 걸린 자녀나 부모 남편 아내를 길거리에 내다버리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입니다.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가

28) H. B. Hulbert, op. cit., (249).

29) 황현(黃玃), 매천야록(梅泉野錄) (1895: 180).

30) O. R. Avison, History of Medical Work, Quarto-Centennial Papers,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Pyeng Yang (1909: 36).

왔다고 해서 전력을 다해서 그 무서운 전염병의 한 가운데에서 십자가 완장을 차고 길거리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버려진 시체들을 잘 모셔다가 몸을 씻고 수의를 입혀 정중하게 장례를 치루어 주었고, 내버려진 환자들은 시료소(施療所)에 떠메다가 정성으로 치료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7주 동안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서울에서만 3백여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인들 무섭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실제로 평양에서는 치료하던 선교사 홀(W. J. Hall)이 전염병으로 사망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과 우리 교인들은 최선을 다하였고, 이 서울 시료소에서만 170여 환자가 치료를 받고 그 중에서 63%가 완쾌되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³¹⁾ 할렐루야! 선교사들은 이런 기회에 질병이 사신에 의한 것이 아니요 치료와 섭생을 잘하면 낫을 수 있고 방역(防疫)도 할 수 있다는 교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질고와 가난, 그 시달림 속에서 아무 감격 없이 살아온 우리 겨레들에게 이 기독교자들의 헌신적인 희생적 모습은 삶의 감동과 찬양 그리고 사랑과 감사의 새로운 가치를 체험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던 것입니다. 실로 한국역사 반만년만의 일이었습니다. 고종은 방을 전국에 붙였습니다. “왜들 그러고 있소. 기독교 병원에 가십시오!”

이런 기독교의 희생적인 사회적 봉사가 한국에서는 상하(上下) 귀천(貴賤) 두 층(層)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현실적인 지름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왕실로부터 백정 최하류까지 친근과 소통으로 맥을 이어주는 동력과 생명력은 기독교 이외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현대 한국을 일으킨 것입니다. 구원한 것입니다.

3.2 내버려진 자들에게 대한 구제의 손길들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운명은 실로 산야의 들풀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을 인간적으로 측은히 여겨 대하고 사랑한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만일 질병에 걸려 그 회복이 절망적인 경우 버림을 받아 성문 밖 짚덩이위에서 노숙하다가 죽어가기 일수였습니다.³²⁾ 우리 겨레 어딘가 이렇게 무서운 데가 있는 족속이던가 하는 생각에 몸이 떨립니다.

선교사들은 실제 이들을 데려다가 죽을 때까지 돌봐주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나 위해

31) L. H. 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New York, American Tract Society (1905: 274).

32) The Annual Report of the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for the Year of 1886 (275).

간호해주고 또 죽을 때 나 위해 슬퍼해주는 사람 손에서 죽는구나 하는, 그런 감격으로 눈감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887년만 해도 서울 4대문 밖에 수백 명에 이르는 이러한 사고무친(四顧無親)의 병환자들이 외롭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될수록 많이 데려다가 간병해주고 임종을 지켜준 것이 교회였습니다.³³⁾

4. 기독교 사회복지 사역

4.1 사회 사역에 대한 선교사들의 정책문제

선교사들 대부분은 대개 복음전도를 중요한 선교사업으로 생각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가령 1920년에 북장로교 선교사는 전부가 137명이었는데 전도사업 이외 교육이나 의료 및 문서 사역에 종사하는 이는 40명 곧 5%에 불과하였습니다.³⁴⁾ 그런데 사회감각에 예민하였던 캐나다 장로교선교회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1918년 현재 교육과 의료사업비는 14,201원으로 전체 40,606원의 35%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당해 연도 재정의 54%에 버금하는 비율이었습니다.

이런 비율은 사실 심각한 문제를 꺼안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전도사역에 충실하여야 할 때에 지나친 예산 배당이 사회사역에 배당되고 있다는 사실이 들어난 것입니다. 한국교회로서는 학교라든가 병원 및 복지시설이 그 시설 및 경영과 인사급여가 교회 유지보다는 더 소요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전도 사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던 선교사들에게는 절대 쉽게 건너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들의 인원 배치는 5%에 불과한 그런 사역에 예산의 거의 반 정도를 쓰고 있었다는 것은 곧 반발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더구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선교에서는 해마다 시설 보수라든가 설치의 예산이 막대하게 들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전도 선교사들은 의료사업과 같은 사회사역은 복음전도의 전초적(前哨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³⁵⁾ 부차적인 역할론입니다.

이 문제는 1934년 장로교 선교 희년기념대회에서 예비순에 의하여 신랄하게 비판되고

33) Ibid., (316).

34) E. A. Pollard, The History of the Missionary Enterprise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in Korea (1927: 177).

35) The Beginning of Medical Work in Korea (December 1892: 358).

있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복음전도 선교사들은 사회사역이 한국인들에게서 복음사역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³⁶⁾ 그래서 예산 삭감을 실제 시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료선교사들의 증원을 막고, 점차적인 사업 축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1900년 에비슨이 뉴욕에 가서 세브란스(L. H. Severance)에게서 병원설립기금으로 1만 달러를 회사 받았을 때, 그 절반은 복음전도에 내놓으라는 평양계 선교사들의 고집에 오래 시달렸습니다.³⁷⁾

그러나 의료관계 선교사들은 그들 사역 자체가 복음 전도의 한 방법인 것을 강조하고 물러서지 아니하였습니다. 1907년 세브란스의학교의 졸업식에서 에비슨은 이들 졸업생들이 “공식적으로 안수(按手) 받았다”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³⁸⁾ 이 안수라는 말은 목사 임직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안수 받는다”는 말이 한국교회 사회복지사역의 사명의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직(聖職)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사역은 교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감리교 선교부는 그 선교사들이 학교와 의료기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복음전도 사역에는 거의 실패하였다고 자인할 정도였습니다.³⁹⁾

이러한 사회사역과 복음사역 사이의 간격은 사회사역이 비교적 정착된 환경에서 일하는 반면에 복음사역은 주로 순회라든가 교회 시찰이라든가 해서 비교적 움직여 다녀야하는 직분상의 차이, 그리고 예산 배당의 현격한 차이 때문에 그 거리가 쉽게 채워지지 않았었습니다.

4.2 초기의 나병원(癩病院)과 맹아(盲啞)-농아(聾啞)학교 및 고아구제

재앙의 병으로 알려진 나병(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의료사역 역시 기독교회가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1897년에 인도동양나병선교회에서 재정적 도움을 받아 1909년 전라남도 여수에, 1910년 부산에, 그리고 1915년에는 대구에, 각각 나병원을 설립하였던 것입니다.⁴⁰⁾

맹아학교와 농아학교 역시 기독교가 먼저 그 손을 뻗었습니다. 1898년 평양의 로제타

36) O. R. Avison, Contribution of Medical Work of the Christian Movement, The Fiftie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34: 169).

37) 이광린, 올리버 R. 에비슨 (1992: 157)

38) O. R. Avison, History of Medical Work in Korea, Quarto Centennial Papers, (1909: 42)

39) C. D. Stokes, A History of Methodist Missions in Korea 1885-1930, A Yale Ph.D. dissertation (1974: 126)

40) 장로교회사전취집(史典彙集), 1918, p. 13.

홀(R. S. Hall)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시작한 것이 그 처음입니다. 그는 이미 그 전 해에 맹인점자법을 한글과 한자에 맞춤법에 따라 작성하여 [뉴욕식 점자]로 창안해서 그것으로 초등교본과 기도문 그리고 십계명 일부를 편찬하여 교수하고 있었습니다.⁴¹⁾

흥미로운 것은 이들 맹인들이 못 보는 것을 불쌍히 여겨 이렇게 교육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들 맹인 남녀들이 “으레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에 매이게 되어서 마귀를 위하는 일로 입을 삼아 사람을 속이는 망령된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⁴²⁾ 비참에다가 오류와 비행이 한국맹인들의 숙명이었습니다. 살길이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⁴³⁾ 그들에게 밝은 빛을 주고 건전한 생활로 이끌어 간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고아 구제사업은 1886년부터 북장로교의 언더우드(H. G. Underwood)와 성공회의 랜디스(E. B. Landis)가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호주장로교 선교부에서도 1893년 부산에서 고아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장로교공의회는 이들에게 이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불구아동 구제사업은 1897년 서울에 “불구아동의 집”을 마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단순한 인정에 끝난 순간의 자선이 아니고 영구적인 사업으로 하기 위하여서 이사회를 조직하고 법인을 구성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요리와 세탁, 정원가꾸기와 채소재배와 같은 일들을 하도록 자생(自生) 자활(自活)의 길을 교육하였습니다.⁴⁴⁾

4.3 1920년대 후반의 사회복지 사역

4.3.1 시대적인 상황

1920년대는 심각한 사회혼란의 시대였습니다. 특히 1925년 공산당이 일제(日帝)에 의하여 불법화되고 나서는 공산주의자들의 반격과 비판이 일제보다는 오히려 기독교회를 향하고 있는 듯한 양상을 띄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만주나 시베리아에서는 가공할 만한 살상이 교회를 향하여 집중되고 있었습니다.⁴⁵⁾

41) R. S. Hall, The Clocke Class for Blinds Girls, The Korea Mission Field (July 1906: 175).

42) 평양통신, 맹학교, <독립신문> (1905: 2, 28일자).

43) G. H. Jones, The Status of Woman in Korea, (ii), The Korea Review (January 1902: 3).

44) Home for Destitute Children, The Korea Review (June 1901: 253).

45) 여기 대해서는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2008: 480-486).

더 심각한 것은 국내 농촌의 피폐현상이었습니다. 1930년을 전후한 일간(동아일보, 조선일보) 신문에는 “반영구적인 기아 상태”에 시달리는 한국사회와 농촌, 우리 농민 6백만 명의 절량(絶糧)상태, 4백만에 이른 해외 이주 농민들의 참상,⁴⁶⁾ 그리고 매일 매일 굶어죽는 동포들의 기사가 연중 끊이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그 때 우리 교회는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1931년에 우리가 지어 부른 찬송가는 “아침해가 돋을 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힘 넘치고 먼 앞날의 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4.3.2 교회의 사회사역 의식 구체화

한국교회의 터전이 농촌인지라 농촌의 타격은 곧 교회의 타격이었습니다.⁴⁷⁾ 현금액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성수주일의 전통도 지켜지기 힘든 일들이 겹쳤습니다. 이러한 무력감은 한국교회 역사상 미증유의 것이었습니다. “그 생명이 거이 없어질 것 같은 위기의식”이 덮치고 있었습니다.⁴⁸⁾

이런 배경을 두고 이미 남감리교회는 1918년 『사회신조』를 그 교회 장정(章程)에 편입합니다. 그 신경에 보면 16개 항에 걸친 사회사역의 범위가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곧 생활의 동등, 가정의 순결, 아동의 교육기회와 아동노동 폐지, 여자노동의 조건 개선, 빈곤의 예방, 금주, 건강과 노동자들의 위험에서의 보호, 강제노동의 금지, 퇴직노동자들을 위한 규정, 노동조합과 그 중재, 안식일의 휴식, 노동시간의 합리적 조절, 최고의 공전(公錢), 재산취득과 공정분배에서의 기독교의 원리 적용, 대개 이런 것들이 그 골자였습니다.

한편 조선야소교장감연합협의회(長監聯合協議會 1918년 조직)는 1920년 4월 그 4차 총회에서 재한복음주의선교협의회에서 요청한 것을 받아드려 결의를 한 바 있는데, 거기 제 4항에 다음과 같은 사회지향운동이 지향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사회적 봉사를 실행키 위하여 정신병자의 보호원, 고아의 양육원, 걸아(乞兒)의 실업학교, 연로자나 불구자나 맹아(盲啞) 등의 양로원, 쇠약한 여자의 구호원, 나병(癩病)과 폐병 환자 등의 병원

46) F. A. McMenzie, Korea's Fight for Freedom (1920: 202-203).

47) J. S. Gale, The Christian Movement in Korea, The Christian Movement in Japan, Korea and Formosa (1922: 334)

48) 조민형, 농촌교회 갱신론, <기독신보> (1931. 3. 25일자)

등을 설립하기로 권면(勸勉)할 것이며, 그 외 빈한자를 구제키 위하여 공장에 노동자 등과 궂치 일하며, 그 가정을 심방함과 노동하는 부인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할 공장과 세가(賈家)를 준비하며, 기타 전도사업의 필요할 종류를 권면할 것.⁴⁹⁾

선교사들의 사회의식이 한국교회를 앞서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들 선교사들의 선교사연합회의회는 1923년에 이미 공창(公娼)폐지운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사회감각과 그 사역은 1928년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예루살렘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nference)의 영향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그 총회 안에 농촌부를 신설하였으며, 상설 사무국까지 설치합니다.⁵⁰⁾

4.4 기독교 사회 구제 복지활동

4.4.1 극빈자 노약자 구제활동

한국교회는 농촌궁핍화의 과정에서 이 겨레들과 함께 간다는 민족의식으로 이런 구제사역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제도나 구조의 개선 이런 것 이전에 당장 눈앞의 비참한 이픔을 치유하고 동행하고 위로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사자(凍死者)들은 서울 시내에서도 수 없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구세군이 먼저 여기 나서서 1923년에는 서대문 밖에 동사자들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그해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식사의 날”을 설정하고 1천여 명의 극빈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구세군의 크리스마스 자선남비는 1928년에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이런 형태의 것으로는 1936년 김익두(金益斗)나 배민수(裴敏洙) 주도의 삼동회(三同會)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동사할 것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3일 동안 우선 무료로 숙박하게 하는 시설이었습니다.⁵¹⁾ 여기를 거쳐 간 사람은 1937년 152명에 달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1919년 오궁선(吳兢善)의 서대문 옥천동의 “경성보육원”, 1913년의 “경성양로원”,⁵²⁾ 연동교회 이강혁의 “자혜양로원”, 평양 정지강의 “애린원”이 있었습니다.⁵³⁾ 사회사업이

49) 비록, 조선야소교장감연합회의회 제 4회 『총회록』 (1920: 6-7).

50)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17회 회록 (1928: 39, 31). Ibid., 제 22회 회록 (1933: 26).

51) 행려(行旅)극빈자 구급기관 삼동회, <청년> (1936. 12월호: 12)

라든가 사회복지라는 말은 정지강이 처음 쓰기 시작한 말입니다.

4.4.2 나병원

여기 대해서는 초기 사역에 대하여 잠시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의 발전에 대하여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국의 나병환자는 1933년 현재 2만여 명을 산정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 14%가 병원에 수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64% 곧 1,724명이 선교부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⁵⁴⁾ 그리고 이들 병원을 재정적으로 도운 교회는 장로교회가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1939년에는 1,039원을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황실에서의 도움에 대하여서는 전에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이들 나병원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은 실로 천사와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광주에서 일하던 윌슨은 “이 병을 이 땅에서 몰아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⁵⁵⁾

이들 병원은 완전히 자율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스스로 하게하고, 공장을 두어 목수, 석수, 미장이 땀장이, 철공들, 이렇게 해서 병원 안의 모든 시설들을 스스로 건설하고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농사도 스스로 짓게하여 채소와 벼농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요양방법이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보람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도 일반 사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게 한 놀라운 운영방법이었습니다. 삶을 살게 하고 할 일을 찾고 헌신하는, 고귀한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환자들에게 간호술을 가르쳐서 수술이라든가 약 처방까지 하게 한 것입니다.⁵⁶⁾ 물론 대수술은 의사들이 하였습니다. 다른 나병원에 가서 출장 간호한 환우들도 있었습니다.

52) 해관 오궁선 (1977: 89-92)

53) 애린원 창립취지, 정지강, 그는이렇게 살았다. 그는 이렇게 외쳤다 (1982: 250-251).

54) The Annual Report on Administration of Chosen 1932-33 (Government General of Chosen: 98)

55) R. W. Wilson, Leper Work, The Christian Movement (1925: 586).

56) 윌슨, 광주문동병원 상황, 본토 독자제씨의게 (3) <기독신보> (1924: 6.25일자).

4.4.3 결핵병원

결핵은 당시로서는 치명적인 질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구의 도시집중, 공업화의 진전, 경제곤란으로 불가피해진 가옥의 왜소(矮小), 영양부족, 가옥의 밀집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결핵병원은 세브란스병원의 내과교수 스타이즈(F. M. Stites)가 1920년 그 병원에 부속으로 신설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926년에 평양에도 결핵요양소가 하나 세워집니다.⁵⁷⁾ 1928년에는 황해도 해주에 감리교회가 “폐병요양원”이 황해도지사의 참석아래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 2천3백만 명중, 그 절반에 이르는 이들이 결핵 감염자이고 그 중에서 1백만 가량이 결핵환자로 추정되고 있었습니다.⁵⁸⁾ 일단 걸리면 그 7월이 사망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이병(罹病)층의 7월 내지 9월이 18세에서 30세의 청장년층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인의 가장 무서운 치사(致死) 질병은 결핵, 나병, 화류병이었는데, 결핵이 가장 무서웠던 것은 그 전염속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한국의 버팀목인 이들 청장년층의 병약화와 병사는 민족의 생존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결핵박멸을 위해 해주 구세병원에서 크리스마스철을 발행하기 시작한 것이 1932년 성탄절 때부터의 일입니다.⁵⁹⁾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F. D. Roosevelt)도 이 실을 하나 샀습니다.⁶⁰⁾ 하지만 1929년 현재 기독교의 전체 병원 수는 30개 처였으며, 이는 전국 71 사립병원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병원에서는 연 9천의 입원환자, 1만여 명의 외래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⁶¹⁾

당시 한국의 질병과 가난은 심각한 것이어서 인구 증가율을 따지지 아니하고 추산하더라도 30년 이상 걸려야 한국인 전체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 의료문제는 그 중대성에 있어서 실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 중대한 문제는 자신의 희생과 인류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 기독교가 사명을 받고 나선 것입니다. 기독교 이외에는 그런 사명에

57) T. S. Soltau, Korea the Hermit Nation and its Response to Christianity (1932: 45)

58) 크리스마스철을 기회로 결핵병 박멸운동에 협력하라, <기독신보> (1932. 12.14일자)

59) S. Hall, With Stethoscope in Asia: Korea, Missionary Council of Laymen Association (1978: 346).

60) Ibid., (478)

61) J. D. Van Buskirk, Korea: Land of the Dawn (1931: 111)

나설 사람이나 조직이 없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한국인의 풍성한 생활을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을 다하기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4.4.4 어린이복지

어린이들 질병에 대한 교회의 관심은 그들 생명이 10세 미만에서 사망률 45.5%, 더구나 그 중 18%는 한 살도 못살고 죽는다는 가공할 만한 통계에 몸서리쳤기 때문입니다.⁶²⁾

교회는 우선 어린이들의 소중함과 그들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것이 그때에는 필요하였습니다. 1916년에 송도(開城)에서는 “베이비 쇼”를 개최하고, 우량아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⁶³⁾ 공주와 원산에서는 “유아복지센터”를 세웠고, 원산에서는 1933년에 1,612명의 유아들을 양육 진료하였던 것입니다. 캐나다연합교회는 33개 처에 이런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서도 전국의 선교 스테이션마다 어린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태화여자관의 로젠버그(Miss E. T. Rosenberger)가 운영하던 “복음센터”에는 아동복지부를 설치하여 아동 5백여 명을 상대로 진료하며 육아와 공중위생 계몽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영아의 지력 발전과 그 건강에 대한 논문이 <기독신보>에 연재된 사실입니다. 부모들이 알아야 할 어린아이의 발육과 건강을 돕는 영양소에 관한 글들이었습니다.⁶⁴⁾ 거기 보면 요새 읽어도 유익한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그 때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살았는가 라고 묻기까지 할 만한 것들인데, 교회가 하는 일이 어느 때나 그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유아에 대한 관심은 한국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이제 유교적 사회에서 연장과 어른에 대한 존경에서 어리고 젊은 세대에 대한 인식과 소중함이 드높여지는 변화를 한국사회가 경험하도록 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4.4.5 여자복지

앞서 본 태화여자관은 남감리교회가 여자복지를 위해서 1920년 서울에 세운 복지기관입니다. 그것이 1923년부터는 장로교와 연합으로 운영하게 됩니다.⁶⁵⁾ 송도(松都-개성)에도 이런

62) Ibid., (88-89)

63) C. Erwin, Baby Show at Songdo, The Korea Mission Field (April 1916: 113-114).

64) <기독신보> (1932: 11, 30, 12, 7일자).

유형의 고려여자관이 1922년 세워집니다. 유아진찰과 순회산파사역이 그 중심이었지만 동시에 가정생활의 규모, 적당한 운동, 절제와 위생 그리고 보건에 관한 교육 훈련도 병행하였습니다. 교회가 아니었던들 최소한도의 이런 인간적인 사역의 역사는 한국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건전한 인간생활과 가정생활의 틀을 갖추어나가는 일들을 교회가 한 것입니다.⁶⁶⁾

이제 이러한 복지운동은 삶 곧 생의 문제보다는 생활의 차원으로 옮겨진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 있는 사람의 문제가 중요한 목표가 된 것입니다. 사는 것이 문제였던 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 그런 전환이 눈 띄입니다. 교회가 이런 사회의 내일을 위해 끼친 공로는 한국현대사에서 결코 잊혀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5. 남어지 말

일제말기에 이르면 사회사역은 복음주의 보수계의 반발과 일제관현의 취체(取締)로 그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게 됩니다. 복음주의계에서는 그런 사역에 대한 일제의 감독과 단속을 기피하였던 까닭이고, 일제 관현은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민족의식과 반일정서를 키운다는 혐의로 검색을 강화하였기 때문입니다.

한국현대사에서 사회복지나 사회구제와 같은 일들은 전부가 다 기독교에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가난하고 버려지고 병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고 또 치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당한 한 인간으로 그 존엄을 먼저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성서적 메시지가 그 주요 견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근대사에서 병든 자나 신체장애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은 실로 사회에서 버려진 떼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볼 마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아무 메커니즘이 없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여유가 없었을 뿐 만 아니라,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 인간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불행의 배후에 천재(天災)와 불운도 있었지만, 주초(酒草)라든가 아편,

65) J. S. Ryang, Southern Methodism in Korea, Thirtieth Anniversary, Board of Korea Annual Conference (1926: 153)

66) 사실, 시급한 보건문제, <동아일보> (1924: 1. 26일자)

축첩(蓄妾)과 같은 사회적 악덕 곧 도덕적인 문제도 그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교회는 더욱 교정(矯正)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그런 악의 제거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소박한 인정으로 대하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구와 조직을 갖춘 시스템으로 발전하였고, 그 역할과 담당도 전문직들로 채워가고 시설도 확대되어 갔습니다.

이 때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복음주의 전도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 일정한 예산에서 이런 시스템에 소요되는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사실을 들어, 기독교가 마치 사회복지 기관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실 복음전도 사역은 몸으로 하면 되지만 사회복지나 사회구제 사업은 상당한 시설이 필요하고 또 그것도 개선하고 증설하는 문제가 매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갈등과 상호견제는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더구나 전도에 치중하던 선교사들은 사회복지사업이 행정적으로 조선총독부의 감독과 지시를 받아야 하는 점을 걱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계의 교회인과 선교사들은 사회복지나 의료나 농촌사역에 종사하는 이들도 다 “성직(聖職)”에 있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였습니다.

사회복지나 사회구제 사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치유(治癒)에서 향상(向上)이란 단계로 진전하였습니다. 단순히 회복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더욱 나은 생활수준으로의 향상을 기도(企圖)한 것입니다. 가령 나병원에서의 자력갱생의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통한 실제 치료까지의 역할 담당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인간다움과 인간존엄의 기독교적 메시지가 아니면 불가능한 발상이었습니다.

더구나 노인들을 위한 요양에 힘쓰면서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더욱 힘쓴 것은 사회복지가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참신한 도전과 전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현대사에서 사회적 악덕과 인간적 불행을 나 자신의 문제로 알고 그 치유와 회복 및 향상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나섰던 유일한 국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업적은 빛났습니다. 그것은 장차에도 더욱 그렇게 할 것을 다짐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